'여걸'에서 '밥블레스유'까지…진화한 여성 예능史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시도해
좁고 좁은 여성 예능 장르서 열심히 달린 결과

쉽지 않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여성 예능은 진화하고 발전했다.

여성 예능은 방송가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웃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웃길 수 있는 게 예능인의 숙명이기에, 좁고 좁은 여성 예능이라는 장르에서 여성 예능인들이 열심히 달려온 결과다.

2004년 KBS 2TV '해피선데이'의 코너로 방영된 '여걸 파이브'는 대한민국 예능사에서 여자 예능인만 모여서 선보인 버라이어티의 시초였다. 이경실, 정선희, 조혜련, 옥주현, 강수정까지 초대 멤버의 라인업도 화려했다. 지석진이 MC로 함께했고, 2005년 5월부터 이경실 대신 이혜영, 심은진, 홍수아가 합류해 '여걸 식스'로 발전시켰다.

이후 '여걸 식스'는 쥐돌이 게임, 디비디비딥 등 국민적 열풍을 일으킨 게임과 이휘재, 김종민, 이승기 등 남성 게스트를 초청하며 2008년까지 롱런했다. 현영, 최여진, 이소연, 전혜빈, 박경림, 채연 등 여성 예능인은 물론 여성 연예인들도 활약할 수 있는 여성 예능으로서 그 가치를 빛냈다.

'여걸 식스'의 인기와 함께 2007년 케이블에서도 여성 중심의 버라이어티가 탄생했다. 바로 '무한걸스'.

비록 '무한도전'의 재창조 형식으로 케이블 채널에서 시도된 여성 예능프로그램이었지만,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백보람, 황보, 안영미, 정시아, 정가은, 김숙, 김나영, 김주리, 오주은, 안혜경 등 세대 교체를 알리는 다수의 여성 예능인이 '무한걸스'를 거쳐가며 방송인으로서 도약했다.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다. 파일럿으로 시작한 '무한걸스'가 시즌 3까지 방송되며 무려 6년간 장수한 것. 국내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행보였다. 무엇보다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김숙, 안영미 등 '무한걸스'에서 활약했던 여성 예능인들은 여전히 그 우정을 이어오며 여성 예능인 중심의 판을 벌이는 새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아쉽게도 '무한걸스'가 종영한 2013년 이후, 여성 예능사는 명맥을 잇지 못했다. 2016년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말이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꿈 계주'라는 프로젝트 아래 멤버들의 야심찬 도전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시즌 1에서는 라미란, 김숙, 홍진경, 민효린, 제시, 티파니가 멤버로 함께해 인기를 얻었다.

시즌 1 종영 이후 시즌 2에서는 민효린의 꿈이었던 걸그룹 도전을 확장해 걸그룹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특히 '언니들의 슬램덩크2' 멤버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소미의 끈끈한 우정과 눈물 겨운 걸그룹 도전기는 '언니쓰'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비디오스타'는 '무한도전'을 재창조했던 '무한걸스'처럼, '라디오스타'의 스핀오프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토크쇼의 대다수 MC진이 남자 예능인인 지상파와 차별점을 둬 오직 여성(박소현, 김숙, 박나래, 차오루)으로 MC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초대 MC 차오루의 자리는 전효성이 이어받아 현재 써니가 박소현, 김숙, 박나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비디오스타'는 최고의 여성 MC들이 이끄는, '라디오스타'보다 더 독하고 웃긴 토크쇼를 지향한다. 이에 걸맞는 독한 입담을 김숙과 박나래가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새로 탄생한 여성 예능이 있다면 바로 올리브에서 방영 중인 '밥블레스유'다.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콘텐츠 회사 '비보티비'와 올리브가 공동 기획하는 '밥블레스유'는 시청자의 생활 밀착형 고민을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먹부림+고민풀이' 쇼.

뚜껑을 연 '밥블레스유'는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의 쫀쫀한 수다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쉼 없는 먹방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는 송은이의 주도 아래 웹예능 '판벌려(판을 벌이는 여자들)'가 큰 이슈를 모았다. '판벌려'를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 그룹 '셀럽파이브(송은이, 김신영, 김영희, 신봉선, 안영미)'는 역으로 '무한도전'의 게스트 초대를 받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방송가의 보이지 않는 벽은 견고하지만, 여성 예능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지난 15여 년간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다.

'꽃할배' 3년 공백 '독' 아닌 '득'

3년 공백은 '독'이 아닌 '득'이었다.

'꽃보다 할배 리턴즈'(꽃할배 리턴즈)가 금요일 밤을 지배하고 있다. 6일 방송된 '꽃보다 할배 리턴즈' 2회는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합한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8.5%, 최고 12%를 기록했다.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다. tvN 주요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4.3%, 최고 6.5%를 기록,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보이고 있다.

'꽃할배 리턴즈'는 할벤저스 H4(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에 막내 김용건이 합류해 동유럽에서 펼쳐지는 진짜 어른들의 리얼 배낭 여행기를 담았다. 독일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동유럽 여행은 어느 여행만큼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나영석 PD는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3년 공백을 이렇게 얘기했다. "3년을 쉬었던 건 '삼시세끼'를 비롯해 '윤식당' '알쓸신잡' 등 새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신경 쓰느라 '꽃할배'를 기획하지 못했다. 그러다 시간이 꽤 흘렀고 사람들이 '꽃할배'를 많이 잊고 있을 것 같아 머뭇거리고 있었다."

시작만 했다 하면 5% 이상의 시청률은 보장해주던 효자 프로그램이 '꽃할배'였다. 나영석 PD로선 포기하기엔 아까운 카드였다. 그렇다고 시즌을 시작한 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먼 여행을 또 나서기엔 할배들의 건강은 장담할 수 상황이었다. 그나마 70대였던 할배들도 80대가 됐고, 막내 김용건의 나이가 일흔 넷이었다.

그의 깊은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준 이는 맏형 이순재였다. 나영석 PD는 "이순재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우리 또 가야지?' 하셨다. 여행을 갔을 때 스케줄을 힘겨워 하실까봐 걱정이 됐는데, 가장 연장자인 순재 선생님이 의욕을 보이셔서 그게 도화선이 됐다"고 뒷이야기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 기획에 들어갔다. 여든이 넘은 나이를 고려해 계절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날씨가 가장 따뜻할 때 모시고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3년 만에 컴백한 '꽃할배'엔 시청욕을 부르는 변화가 있었다. 멋쟁이 김용건이 새 '막내 할배'로 합류했다. 김용건은 20대 후반 백일섭과 하숙을 함께 한 사이였다. 동거동락한 두 사람은 박근형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때 그 시절을 보냈다. 제작진은 "이름은 꽃할배지만 프로그램에서 '꽃보다 청춘'이 보인다"며 "20~30대 때 한참 놀던 세 분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추억을 공유하며 새로운 막내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용건은 지금까지 꽃할배 중 가장 수다스러운 캐릭터다. 나영석 PD는 "하루에 농담을 1000개 이상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서진의 떨어진 체력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나영석 PD는 "이서진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 노안도 왔더라. 지도를 잘 보지도 못한다. 다음엔 할배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할배들과 한층 더 깊어진 케미로 노련한 가이드 역할을 해 프로그램의 매력을 십분 살렸다.

'꽃할배'는 나영석 PD가 KBS를 떠나 CJ E&M으로 이직한 후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나영석 PD는 지난 제작발표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협찬 많이 따서 회사에 돈 좀 벌어줘야 하는데', '시청률 잘 나와야 하는데'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꽃할배'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예능 프로그램 흥수 속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꽃할배'가 지닌 의미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3년이란 공백을 무색케 하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한편, 6일 방송에선 꽃할배들이 생생한 독일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을 느끼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할배들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체크 포인트 찰리, 월 메모리얼 파크 등으로 발길을 돌리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각자가 느끼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드러내며 추모하는 마음을 깊이 새겼다.

이서진은 짐꾼 임무 수행 중 작은 실수들을 연발하며 인간미를 발산했다. 도착할 지하철 역을 착각하고, 목적지를 지나치는 등 지난 숱한 여행 기간에도 막힘없이 해냈던 가이드 임무에 실수를 해버린 것. 이서진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오히려 할배들은 '흔치 않은 경험'이라며 넉넉한 마음을 보여줬다.

또한 백일섭은 그동안 여행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 여행 내내 다른 할배들보다 뒤쳐지던 게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 이에 백일섭은 새로운 마음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출발해 발걸음을 맞춰가는 여행 방식을 택했다. 편안하게 대우받으며 여행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행에 임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블랙핑크, 24일째 음원 1위…팬들 마음 불 지핀 '뚜두뚜두'

그룹 블랙핑크가 24일째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음원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 타이틀곡 '뚜두뚜두(DDU-DU DDU-DU)'는 8일 오전 10시 기준 멜론, 엠넷, 지니, 올레, 벅스 등 주요 음악사이트에서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

블랙핑크는 올해 기준 걸그룹 최장 기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지난 1월 43일째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던 아이콘의 바통을 이어 받아 차트 장기집권을 이뤄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걸그룹 톱클래스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기세가 대단하다.

'스퀘어 업'이 공개 동시에 44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에 국내 걸그룹 최초로 진입했다.

최근에는 K팝 가수 중 유일하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전세계 약 400개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그림에 삽입됐다. 그림에서 블랙핑크는 팝스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스퀘어 업'과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빌보드 메인 차트인 'Billboard 200'에 40위로 'Hot 100'에 55위로 진입, 앨범-싱글 메인차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걸그룹으로서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써냈다.

발표한 뮤직비디오 모두 억대뷰를 기록하며 '조회수 요정'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블랙핑크는 이번 뮤직비디오로도 신기록을 세웠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공개 21일 7시간여 만에 1억 5천만 뷰를 달성, K팝 남녀 그룹을 통틀어 최단 기록을 새로 써냈다. 종전 기록에서 3일을 단축시킨 결과다.

특히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역대 전 세계 뮤직비디오 2위에 오르며 엄청난 글로벌 파급력을 과시했다. 해외 유명 매체들도 앞다퉈 블랙핑크의 놀라운 기록을 대서특필하며 이들의 놀라운 성과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음력 5월 26일)

▶쥐띠 내처지를 비관하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상실하고, 승산 있는 계획에도 착오가 생긴다. 1, 3, 8월생 매사 긍정적인 웃음이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세상일은 야무지게 하지만, 애정은 안 돼서 울상을 짓는다. 밤길 운전을 조심하라.

▶소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재기를 위해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헤쳐 나가라. 당신이 방황하는 동안 가정의 자식은 이탈하려고 한다. ㄱ, ㅇ, ㅈ 성씨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 평화를 먼저 유지하라 두 길을 걷지 말라. 가정에 신병수 따르니 조심할 것.

▶호랑이띠 걱정만 하지 말고 해답이 나올 언행을 도모하라. 모두 내게 귀인이 될 수 있지만, 적도 될 수 있다. 언행일치가 명예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5, 7, 10월생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큰코다친다.

▶토끼띠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면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겠다. 1, 6, 9월생 세상이 웃음바다가 될지언정 정작 본인은 웃음을 잃은지 오래다. 애정문제에 시달린다. 사업은 서서히 풀린다.

▶용띠 새로운 것을 찾는 격이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이 오지만 용기가 부족한 시점이구나. ㄱ, ㅊ, ㅇ 성씨는 귀인이 나타난다. 쥐, 닭, 소띠를 믿고 따르라. 득이 되니 손을 잡아야 한다.

▶뱀띠 내 주장만을 피력하려고 하면 상대는 그 마음을 외면한다. 내 단점을 인식하고, 대화를 온화하게 이끄는 화술을 배우라. 1, 9, 12월생 극단적인 언행으로 나오려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말띠 남 보기에 겉은 대단히 화려한데 기초공사가 부실하다. 욕심부리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 1, 3, 7월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작전상 한발 후퇴하는 두뇌가 필요하다. 운수, 서비스업은 길하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 금전 관리가 필요하다.

▶양띠 사소한 일로 주위와 다투겠다. 이기적인 사고보다 상대를 존중하며 이해할 줄 알아야 사업 또한 길하다. 1967년생 ㄱ, ㅍ, ㅇ 성씨 흰색이 하는 일에 힘을 줌.

▶원숭이띠 ㄷ, ㅊ, ㅎ 성씨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라. 2, 3, 11월생 주위 사람들과 추진하는 일은 급히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기다리며 추진할 때 대성하나 금전으로 고전하겠다. 북, 동쪽이 길하다.

▶닭띠 조금만 인내하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긴다. 4, 8, 12월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추진하는 일은 전반기에는 힘들었지만, 후반기부터는 역전 기회가 있다. ㄱ, ㅊ, ㅎ 성씨 자식 걱정 탓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라.

▶개띠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한 자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날이다. 2, 3, 10월생 혼자 고독을 느끼는 것 같으나 주위 많은 사람도 외로움이 있다. 명랑한 웃음이 필요하다. 북쪽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고, 상대를 한 번 믿었으면 밀고 나가면 행운이 오겠다.

▶돼지띠 5, 7, 9월생 의연한 자세로 적절할 때를 기다리면 행운이 오고, 모든 것이 서서히 풀려 나간다. 열심히 노력하되 경거망동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니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